

2025
중3-1
천재(박)

2025 중3-1 국어 천재(박) | 1(1) 꽃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꽃>에서는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시의 내용을 정리하여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고, 시구와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보기>

내가 그와 밥을 먹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한 반 친구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와 밥을 먹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단짝이 되었다.

내가 그와 밥을 먹은 것처럼

나의 이 입맛과 식욕에 알맞는

누가 나와 함께 밥을 먹어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단짝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밥 동무가 되고 싶다.

- 이정윤, 《밥 동무》

1. 밑줄 친 ㉠~㉥ 중 시어의 의미가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 밑줄 친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꽃의 특징
② 존재의 본질
③ 우리의 희망
④ 화려한 겉모습
⑤ 내가 좋아하는 것

3. <보기>는 위의 시를 모방하여 쓴 시이다. 위의 시와 모방시에 쓰인 시어의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 | | ‘꽃’ | ‘밥 동무’ |
|---|---------|--------|
| ① | 이름을 부르다 | 밥을 먹다 |
| ② | 몸짓 | 단짝 |
| ③ | 꽃 | 입맛과 식욕 |
| ④ | 빛깔과 향기 | 밥 동무 |
| ⑤ | 눈짓 | 한 반 친구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4. ㉠~㉥ 중 그 의미가 같은 것만 모두 묶은 것은?

- ① a, b ② a, c, e ③ b, c, e
④ c, d, e ⑤ a, b, d, e

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에는 ‘나’의 소망이 드러난다.
② ㉠과 달리 ㉢에는 이름 부르기 전·후의 상황이 모두 드러난다.
③ ㉢과 달리 ㉠에는 시적 대상의 확장이 나타난다.
④ ㉢과 달리 ㉠에는 ‘나’의 본질적 특징이 나타난다.
⑤ ㉢과 달리 ㉠에는 ‘그’와 ‘나’의 수직적 관계가 드러난다.

신유형

<꽃>에서는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시의 표현 방법에 대해 묻는 문제, 다른 갈래의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 독자의 심미적 체험을 묻는 문제, 시적 화자가 바라는 바를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시에 담긴 심미적 인식을 파악하고, 시의 표현 방법과 시어의 의미 등을 학습해둔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나)
“아니, 난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뭐지?”

“그건 사람들이 너무나 잊고 있는 건데……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다.

“관계를 맺는다고?”

“물론이지.” 여우가 말했다. “넌 나에게 아직은 수없이 많은 다른 어린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네가 별로 필요

하지 않아. 너 역시 내가 필요하지 않고. 나도 너에게는 수없이 많은 다른 여우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지.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난 네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이제 좀……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 한 송이가 있는데 말이야…… 그 꽃이 날 길들였나 봐.”

-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6. (가)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상징적 시어의 사용
- ② 의성어·의태어의 사용
- ③ 수미상관을 통한 통일감
- ④ 설의법을 통한 반어적 표현
- ⑤ 시적 허용을 통한 역설적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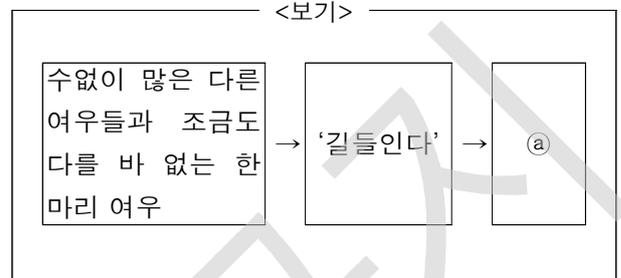
7.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가)의 1연에서 화자는 ‘그’를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② (가)의 2연에서는 ‘그’에 대한 시적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 ③ (가)의 2연과 3연의 ‘꽃’은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이다.
- ④ (가)의 4연에서는 ‘우리’의 소망이 ‘나’와 ‘너’의 소망으로 축소되고 있다.
- ⑤ (가)의 ‘이름을 불러 주’는 행위는 (나)의 ‘길들인다’라는 행위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

8. (가)의 ㉠이 의미하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진정한 관계를 맺는 과정
- ②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
- ③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 ④ 자신의 본질을 깨닫기 위한 노력
- ⑤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한 과정

9. (나)의 여우의 말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을 때 ㉠에 들어갈 말과 의미가 유사한 (가)의 시어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10. 위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담은 글이다.
- ②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한 글이다.
- ③ 대상에 대해 설명하며 독자에게 정보를 주는 글이다.
- ④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논리적인 글이다.
- ⑤ 현실에 있을 법한 일에 작가가 상상력을 더해 이야기를 꾸며 산문으로 표현한 글이다.

11.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ㄱ. 간절한 어조로 소망을 드러낸다.
 ㄴ.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기를 바라고 있다.
 ㄷ. '우리'의 소망을 '나'의 소망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ㄹ. '나'가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는 '나'에게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2.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위 시의 감상을 나눌 때,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음에 드는 시구는 무엇인가요?
- ② 이 시를 읽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 ③ 이 시가 쓰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 ④ 이 시와 관련지을 수 있는 자신의 경험이 있나요?
- ⑤ 시에서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내용이나 표현이 있나요?

13. 위 시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아니, 난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뭐지?”
 “그건 사람들이 너무나 잊고 있는 건데……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다.
 “관계를 맺는다고?”
 “물론이지.” 여우가 말했다. “넌 나에게 아직은 수없이 많은 다른 어린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네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 너 역시 내가 필요하지 않고. 나도 너에게는 수없이 많은 다른 여우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지.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난 네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이제 좀……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 한 송이가 있는데 말이야…… 그 꽃이 날 길들였나 봐.”
 -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 ① 모두 관계에 대한 의미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 ② 시에서 이름을 부르고 '나'와 '그'의 관계가 달라졌다.
- ③ 시와 달리 <보기>에서는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의지가 느껴진다.
- ④ 시에서 '이름을 부른다'의 의미는 <보기>에서 '길들인다'와 비슷하다.
- ⑤ 시의 '꽃이 된다'는 <보기>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 ㉡은 모두 의미 있는 존재를 뜻하는 시어이다.
㉢은 의미 없는 존재, ㉣은 의미 있는 존재, ㉤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주체를 뜻한다.

2. 정답 ②

화자인 '나'의 개성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의미한다.

①, ③, ④, ⑤는 모두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3. 정답 ①

<꽃>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과 <보기>의 '밥을 먹기 전'이 서로 대응한다.

② <꽃>의 '몸짓'과 <보기>의 '한 반 친구'가 서로 대응한다.

③ <꽃>의 '꽃'과 <보기>의 '단짠'이 서로 대응한다.

④ <꽃>의 '빛깔과 향기'와 <보기>의 '입맛과 식욕'이 서로 대응한다.

⑤ <꽃>의 '눈짓'과 <보기>의 '밥 동무'가 서로 대응한다.

4. 정답 ③

㉠, ㉢, ㉤은 모두 의미 있는 존재를 뜻하는 시어이다.

㉡는 의미 없는 존재, ㉣는 '너'와 의미 있는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시적 화자를 의미한다.

5. 정답 ①

㉣에는 '그의 꽃이 되고 싶다.'라는 '나'의 소망이 드러난다.

② ㉠에 이름 부르기 전과 후의 상황이 모두 드러난다.

③ 이 시의 시적 대상은 '꽃'으로, ㉠과 ㉣에는 시적 대상의 확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의 '빛깔과 향기'가 '나'의 본질적 특징에 해당한다.

⑤ ㉠과 ㉣ 모두 '그'와 '나'의 수직적 관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6. 정답 ①

'몸짓'은 의미 없는 존재, '꽃'은 의미 있는 존재를 상징하는 시어이다.

②, ③, ④, ⑤는 모두 옳지 않은 선지이다.

7. 정답 ⑤

(가)의 '이름을 불러 주'는 행위는 (나)의 '길들인다'와 비슷하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한다.

① 1연의 '그'는 의미 없는 존재이다.

② 3연에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다.

③ 2연과 3연의 '꽃'은 서로 동일하며, '의미 있는 존재'를 뜻한다.

④ 4연에서는 '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으로 확대된다.

8. 정답 ④

'이름 부르기'는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이자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므로 존재들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본질을 깨닫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⑤는 모두 옳은 선지이다.

9. 정답 ④

㉠에 들어갈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서로가 서로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 등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존재를 뜻하는 (가)의 ㉢, ㉤, ㉤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존재를 인식하는 행위, ㉣ 의미 없는 존재, ㉡ 존재의 본질을 의미하므로 ㉠에 들어갈 말과 유사하지 않다.

10. 정답 ②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① 주장하는 글에 대한 설명이다.

③ 설명문에 대한 설명이다.

④ 논증하는 글에 대한 설명이다.

⑤ 소설에 대한 설명이다.

11. **정답** ①

위 시의 화자는 ‘~다오’와 같은 간절한 어조를 사용하며(ㄱ),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기를 소망한다.(ㄴ)

ㄷ, ㄹ은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12. **정답** ③

‘심미적 체험’이란 독자가 문학 작품을 읽으며 그 내용과 표현을 두고 아름답다, 추하다, 비장하다, 조화롭다 등과 같이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시가 쓰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관한 질문은 심미적 체험과는 관련이 없다.

①, ②, ④, ⑤는 모두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질문으로 적절하다.

13. **정답** ③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의지는 <보기>에서 찾을 수 없다.

①, ②, ④, ⑤는 모두 적절한 설명이다.

14. **정답** ⑤

독자가 문학 작품을 읽으며 그 내용과 표현을 두고 느끼거나 생각한 것이 아니다.

①, ②, ③, ④는 독자의 심미적 체험으로 적절하다.

15. **정답** ④

작가에게 보내는 편지를 만들어 보면서, 문학 작품을 읽고 난 후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②, ③, ⑤는 모두 적절한 선지이다.

16. **정답** ③

1연과 2연의 내용을 참고하면 ㉠은 ‘하나의 몸짓’, ㉡은 ‘꽃’이 적절하다.

①, ②, ④, ⑤는 모두 적절한 선지가 아니다.

17. **정답** ①

화자는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한다.

②, ③, ④, ⑤는 모두 적절한 선지이다.

18. **정답** ①

<보기>의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와 ‘너는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난 네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를 통해 ‘꽃이 된다’라는 시구는 서로에게 필요하고 유일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②, ③, ④, ⑤는 모두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19. **정답** ①

의미 있는 존재를 ‘꽃’으로 상징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② 풍자와 비판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형식과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자유시이다.

④ 감탄사는 사용하지 않았다.

⑤ 시인의 어투가 사용된 것은 아니다.

20. **정답** ③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독자는 감상을 통해 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①, ②, ④, ⑤는 모두 적절한 설명이다.

21. **정답** ④

위 시의 화자는 ‘~다오’와 같은 간절한 어조를 사용하며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기를 소망한다.

①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② 회상과 반성의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의인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시적 화자 ‘나’가 드러나 있다.

22. **정답** ④

‘무엇’도 ‘꽃’, ‘하나의 눈짓’과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①, ②, ③, ⑤는 모두 적절한 선지이다.

23. **정답** ⑤

(가)의 ‘꽃이 되었다.’는 (나)의 ‘어린 왕자’가 ‘여우’를 길들인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과 비슷하며,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①, ②, ③, ④는 모두 적절하지 않다.